

# “호남 민심이 대선 좌우”...여 ‘텃밭 사수’ 야 ‘서진정책’ 올인

D-100 대선 판세 분석·변수

### 이·윤 사법리스크 표심 영향 2030세대 지지율 흡수 관건 중도 외연확장·단일화 여부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29일을 기준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체제 속에서 치러진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완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의 선택이 대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30세대 및 중도층의 선택도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1~2위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남은 100일간 몇 차례 판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8일 선거에 따르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 대부분은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인 호남 민심을 '집토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호남 민심 결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도 호남의 지지율이 낮은 수도권 등에서 '호남 민심 확보' 및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남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생일인 27일 순천시 연향사가 패션거리로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방문, 지지자들에게 하트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대권 승리는 호남 민심 결집이 우선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일차된 분석이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데다, 호남이 민주당 결집의 핵심적인 축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호남 민심 결집이 전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최근 이재명 후보 측 핵심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지역 정치 인사들과 만나 "호남에서 80~85% 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야 안정적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호남에서의 신규 당원이 8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동안의 '서진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지지율 상승'이

리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모처럼 호남 공략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강아지 사과' 등으로 호남에서의 입지와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향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호남 구애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양강 후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는 사법리스크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재 검찰과 공익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양당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상황과 맞물려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를 띄우고 윤 후보의 고발사주-부산저축은행 부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본부장' (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를 통해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 조폭 유착 의혹, 친형 정선영원 강제입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후원금 모금 의혹 등 20여 개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2030 세대의 표심이다. 4년 전 19대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던 이들 세대는 올해 4·7 보궐선거에서 상당수 보수 정당으로 돌아섰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강 주자 모두 2030세대 지지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취업난, 젠더

갈등 등 청년 세대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2030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각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누가 중도 외연확장에 성공하느냐도 키 포인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윤 후보는 '반문 빅텐트'를 통해 정권교체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각각 중도 공략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박빙 구도로 갈수록 통합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가 중반까지 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선거 결과를 바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이낙연계 오영훈 정무실장에 '文 복심' 윤건영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이 임명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송영길 대표와 상의해 이같은 인선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대변인은 "오 의원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과 정책위 부의장과 상임부의장을 역임해 의회 운영과 입법에 정통한 재선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 "초선의원이지만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밝고, 국회 외 통위원·정보위원으로 한반도 문제 등에도 정통하다"고 전했다. 고대변인은 "특히 이낙연 대표 경선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영훈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을 임명한 것은 워낙 선대위의 정선에 따라 통합을 더욱 가속하려는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신하고 유능한 초재선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스마트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무실은 비서실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오 의원은 비서실장을 제안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와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의 임명은 당정·당정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고대변인은 "아무래도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을 지지거리에서 모시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런 가고 역할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실은 당분간 별도의 배속 인원 없이 윤 의원 혼자 활동할 예정이라고 고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면쇄신에 착수한 민주당 선대위는 기존 3~4선 중진들을 지역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하고, 재선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기민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선대위 지역 정치권 인사 누가 기용될까?

### 송갑석·이형석 등 등용 관측

### 이개호·이병훈 발탁될 수도

### 선대위 규모축소 최소화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중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재명 선대위 개편이 오영훈 비서실장, 윤건영 정무실장에 대변하듯 초·재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발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3선인 이개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재선이기 때문이다.

당장,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재선의 송갑석 의원과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광주·충남본부장을 맡았던 이형석 의원, 전남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주철현 의원,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 등이 개편되는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조오섭 의원도 미디어 및 홍보 파트에 등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여기에 호남 민심의 결집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핵심을 맡았던 이개호 의원과 이병훈 의원의 전격적인 발탁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선대위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의 합류가 최소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지역 정치권 인사 가운데 소위 '이재명 사관'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선대위 핵심 보직을 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에서 선대위 발탁 폭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지 않고선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남 민심이 '이재명 정권=우리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 개편되는 선대위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중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gt; 9억 급매가 -&gt;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gt;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gt; 4억 5천</p> <p>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gt;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gt; 2억 5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h3>분묘개장공고(1차)</h3>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를 하고 인고 사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하야만 인고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적의 임의 개장할 것으로 개장공고 후 소재지내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공사중에 발생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간주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묘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개곡면 여수리 산44</li> <li>2. 분묘기수: 13기</li> <li>3. 분묘개장사유: 개간(농기주택신축), 재산관행</li> <li>4. 개정방법: -무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제에 따라 임의 개정</li> <li>5. 개정 후 안치장소: 총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 길 100 (합동사주묘공원)</li> <li>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li> <li>7. 공고기간: 최종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li> <li>8. 신고처: 오인환 010-3622-1822</li> <li>9. 신고방법: 분묘고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재산확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li> <li>10. 기타사항: 공고이후 분묘는 토지상장료 청구 할지 2021년 11월 29일 공고인: 오인환</li> </ol>	<h3>합병 및 주권제출공고</h3> <p>주식회사 화신그린(합)과 주식회사 티에스파워텍(합)은 2021년 11월 22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이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p> <p>2021년 11월 29일 "갑" 주식회사 화신그린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해안관광로 1365 대표이사 공우덕 "을" 주식회사 티에스파워텍 광주광역시 북구 창안로30번길 41(연제동) 대표이사 구자현</p>	<h3>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h3> <p>본 조합원은 2021년 10월 14일 조합원총회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조합원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p> <p>2021년 11월 29일 달마지마을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달마지길 1 청산인 이윤배</p>	<p>ABC협회인증 <b>호남 최대 발행부수</b></p> <p>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p> <p><b>光州日報</b></p> <p>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p> <p>광고문의 (062)227-9600</p>
<h3>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망 김성운(721206-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양방울대로 825번길 60-6, 101동 2902호(영암동, 창단중재마루)</p> <p>피상속인 망 김성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3819호로 신청하여 2021년 11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1년 11월 29일</p> <p>• 상속인: 1. 윤상우(830116-XXXXXX) 2. 김희연(971202-XXXXXX) 김포시 김포한강로 564, 204동 1406호 (구래동, 엘에이치한가람마을2단지) 3. 김우영(991119-XXXXXX) 창원 13 구(주) 광주 광산구 양방울대로 825번길 60-6, 101동 2902호(영암동, 창단중재마루)</p> <p>• 신고기간: 2021. 11. 29 ~ 2022. 2. 8. • 채권신고소: 상속인 1.윤상우의 주소</p>		<h3>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망 김장재(270507-XXXXXX) • 최후주소: 광주 동구 남문로 734, 102동 1303호 (학동, 학1마을아파트)</p> <p>피상속인 망 김장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1171호로 신청하여 2021년 11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1년 11월 29일</p> <p>• 상속인: 신연택(480312-XXXXXX) 서울 강북구 삼양로 80길 55, 202호 (수유동, 대우에비빌아파트)</p> <p>• 신고기간: 2021. 11. 29 ~ 2022. 2. 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신연택의 주소</p>		<h3>산행안내</h3> <p>12월12일(일) ▲광주Ki산악회 11월28일(일) 강원도 춘천,삼악산645m(주봉 용화봉,청운봉,동선봉)&amp;남이섬, 트레킹산행, 염주체육관03:30, 동아병원03:35,롯데백점03:40, 광주역03:45,문예후문03:55,비엔자차점04:00 *다카카페 광주 Ki산악회 ☎ 010 7794 6920</p>	<p>광도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p>
<p>光州日報</p> <p>지국 안내</p>		<p>복 구: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인 222-8171 • 양 산 571-7658 오 지 266-7601 • 용 통 433-1503 • 우 신 433-1503</p> <p>동 구: 남 광 673-68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총 장 222-8171</p> <p>남 구: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p> <p>서 구: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피 평 376-6511 풍 임 603-0311 • 화 정 369-1625</p> <p>광 산 구: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p>			